

서비스업종 사업장의 고용형태 및 직업안전보건활동 특성과 개선방안 연구

이관형[†]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

(2016. 1. 6. 접수 / 2016. 2. 10. 수정 / 2016. 3. 15. 채택)

The Study of Preventive Improvement on Employment Type and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ctivity in the Very Small Service Industry

Kwan Hyung Yi[†]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Received January 6, 2016 / Revised March 2, 2016 / Accepted March 15, 2016)

Abstract : The labor force has moved to services industry. An industrial accidents of service industry is three people on 10 persons in 2013. This research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s of 1:1 directly person interviews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tended for 150 service workplaces, in order to impro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very small service workplace with less than 5 employee. The survey contents is employment typ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afety and health training, activities. In the results, working with non-regular(informal) workers is two people on 10 persons 27.1% and female workers is about five people on 10 persons with 58.1%, and that 67.9% of non-regular workers who are mainly engaged in the production line appeared. And the work-related injury and accident experience was 3.3% and the occupational injury rate was 1.02%, especially occupational injury rate of female workers was 0.88%. Workplace risk assessment carried out in response that it was very low as 10.0% of the total. Also the safety & health education and activities was very low. Thus the safety consciousness and education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the industrial accidents.

Key Words : injury, occupational, non-regular workers, safety and Health, service industry

1. 배경 및 목적

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제 및 생활 향상이 변화되면서 다양한 서비스업이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업의 등장은 산업사회에서 농업이나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경향, 즉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수요의 소득이 제조업 제품보다 크므로 소득이 향상되면서 서비스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생산성 격차에 따른 상대가격의 차이와 국제 무역으로 기술집약 제품의 생산성이 확대되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수입이 확대되어가면서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²⁾. 이와 같은 변화로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정책 방향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1987년 2.6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산업재해율이 0.59%로 낮아졌다³⁾. 하지만 전체 산업재해율은 감소하였으나 2013년 산업재해현황분석에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하면³⁾,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이 50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보다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좀 더 세분화하면 상시근로자 5인

[†] Corresponding Author : Kwan Hyung Yi, Tel : +82-52-7030-851, E-mail : khyi77@hanmail.ne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400, Jongga-ro, Jung-gu, Ulsan 44429, Korea

미만 사업장 재해율이 전체 산업재해율 0.59%보다 2.4 배 높은 1.41%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2013년 기준으로 산업재해자 10명 중 3명이 서비스업에서 발생하였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종 중 전체 산업재해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재해다발 7대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이다. 7대 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주요 재해유형은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절단·베임·찢림 사고, 교통사고, 떨어짐 사고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초소규모 서비스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고용형태별 근로자 분포, 안전보건 경영실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필요성 및 효과 등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적 지원 사항과 예방측면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대상 및 방법

전국지역의 산재보험가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규모 사업체 중 서비스업 1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은 잘 숙련된 면접조사원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부터 안전관리 담당자와 1:1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6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조사하였다. 그리고 표본 설계는 서비스업종 특성에 따라 7개 층으로 구분하여 전체 표본 크기를 각 층별로 재해율을 고려하여 사업장수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조사된 서비스업종은 7개 업종으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41개소, 27.3%), 음식 및 숙박업(26개소, 17.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23개소, 15.3%), 사업서비스업(22개소, 14.7%), 건물 등 종합 관리업(17개소, 11.3%), 교육서비스업(14개소, 9.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7개소, 0.7%)이다.

3. 조사결과

3.1 조사대상 일반적 특성 및 고용현황

서비스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별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3.91명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근로자 중 21.7%이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49.2%, 여성근로자는 5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직무별에서 비정규직의 경우 생산직 평균 근로자 수와 비율은 0.87명(45.0%)를 차지했으며, 또한 성인지적에

Table 1. Average number and percentage of service workers (Unit : persons, %)

| Division | Employment Type | | Job Function | | Gender | | Total |
|-----------------|-----------------|----------|--------------|-------------|--------|--------|-------|
| | formal | informal | White collar | Blue collar | Male | Female | |
| Average workers | 2.85 | 1.06 | 1.99 | 1.93 | 1.64 | 2.27 | 3.91 |
| Percentage (%) | 72.9 | 27.1 | 50.8 | 49.2 | 41.9 | 58.1 | 100.0 |

Table 2. Distribution of non-regular(informal) workers (Unit : Persons, %)

| Division | Job function | | Gender | | Total |
|-----------------|--------------|-------------|--------|--------|-------|
| | White collar | Blue collar | male | Female | |
| Average workers | 0.19 | 0.87 | 0.34 | 0.72 | 1.06 |
| Percentage (%) | 17.9 | 82.1 | 32.1 | 67.9 | 100.0 |

서는 남성이 0.34명(32.1%)이고 여성은 0.72명(67.9%)으로 남성보다 여성 평균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취약계층 종사자인 여성근로자 비율은 58.1%, 고령근로자 15.0%, 외국인근로자는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4.8시간으로, 전체 사업장의 74.0%가 1주일에 40~50시간 근무하고 있었으며, 50~60시간 근무하는 곳은 8.7%,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곳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사업장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해 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나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에서 조사대상 사업장의 3.3%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사고 재해율은 0.68%, 질병 재해율은 0.34%, 사고와 질병을 합한 전체 재해율은 1.02%로 추정된다.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고나 질병 재해율은 고령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는 0.00%, 여성근로자는 0.88%로 나타났다.

3.2 안전보건 투자 및 경영 활동

2011년 한 해 동안 사업장당 평균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사업장 당 평균 110만원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지출(투자)하고 있는 항목을 보면,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가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진단(관리)비’ 24.5%, ‘인력유지비’ 13.2%, ‘활동비’ 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산재예방을 위해 가장 많이 지출(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역시 ‘안전시설 및 보호장치 투자비’가

Table 3. Expenditures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Unit : %)

| | |
|---|------|
| Safety equipment and protective devices | 49.1 |
| Health screening and treatment | 24.5 |
| Manpower and maintenance | 13.2 |
| Activities | 5.7 |
| Education | 3.8 |
|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 1.9 |
| Do not know | 1.9 |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진단(관리)비’ 28.0%, ‘인력유지비’ 21.3%, ‘교육비’ 6.0%, ‘작업환경 측정비’ 3.3% 순으로 대체로 현재 가장 많이 지출(투자)하고 있는 항목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를 경영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업장이 64.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10.0%로 나타나, 사업장내 안전보건 예방활동 중 가장 취약하였다(Table 4).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기여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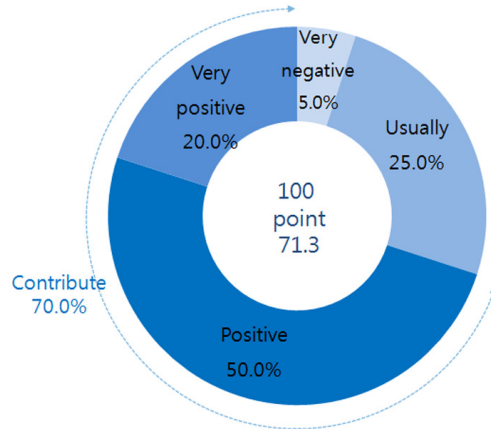


Fig. 1.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contribution of hazard factors self-management.

다는 응답이 70.0%(매우 기여한다 20.0%+기여하는 편이다 50.0%)로 실시 사업장의 경우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미실시 이유로 작업환경이 위험하지 않다(46.2%)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43.1%)는 이유를 꼽았다. 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미실시 사업장(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Activities and evaluation of the employer'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Unit : Persons, %)

| Division | Very negative+Negative | Usually | Positive+Very positive | Do not know | 100 Point |
|----------|------------------------|---------|------------------------|-------------|-----------|
| A | 7.3 | 24.7 | 64.7 | 3.3 | 70.7 |
| B | 32.0 | 22.7 | 40.7 | 4.7 | 51.7 |
| C | 78.7 | 2.7 | 10.0 | 8.7 | 20.4 |
| D | 23.3 | 29.3 | 44.0 | 3.3 | 56.7 |
| E | 30.7 | 34.0 | 29.3 | 6.0 | 49.5 |
| F | 32.0 | 26.7 | 34.7 | 6.7 | 49.8 |
| G | 28.0 | 26.7 | 42.7 | 2.7 | 54.5 |
| H | 23.3 | 30.7 | 42.0 | 4.0 | 56.9 |
| I | 41.3 | 27.3 | 25.3 | 6.0 | 41.7 |
| J | 19.3 | 36.0 | 42.0 | 2.7 | 57.0 |
| K | 60.0 | 20.0 | 16.7 | 3.3 | 29.0 |

- A. Employers are aware of the safety and health work as a field of business management
- B. Employers tend documenting establish a Safety and Health Policy
- C. Performed risk factors self-management (risk assessment)
- D. Review the safety and health laws are applied to the workplace.
- E. Goals and plans for improving the safety and health at work constantly tend to establish each year.
- F. Stipulate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afety and health managing director.
- G. Workers and training and training to acquire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 H. Shared opinions and information with workers about the health and safety problem
- I. Documented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 J. Have a risk of imminent disaster or major disaster safety manual.
- K. Provides a bonus or incentive for the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Table 5. Why not a hazard and risk assessment?

(Unit : %)

| | |
|--------------------------------|------|
| Non-hazardous work environment | 46.2 |
| Not feeling the need to | 43.1 |
| Lack of time and money | 6.9 |
| No know and expertise | 3.1 |
| Do not know | 0.8 |

3.3 안전보건교육 실시, 필요성 및 효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율을 교육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교육 실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채용시 교육(27.3%), 비사무직의 정기교육(22.7%)의 교육 실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실시율과 마찬가지로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율이 가장 높은 채용시 교육

과 비사무직의 정기교육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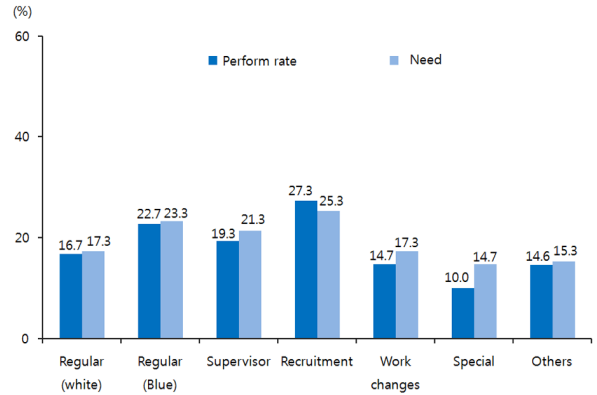


Fig. 2. Perform rate and Needs of the safety and health training.

Table 6. Health care and communication on the workers

(Unit : Persons, %)

| Division | Very negative+Negative | Usually | Positive+Very positive | Do not know | Do not applicable | 100 point |
|----------|------------------------|---------|------------------------|-------------|-------------------|-----------|
| A | 4.7 | 7.3 | 14.0 | 2.0 | 72.0 | 63.5 |
| B | 3.3 | 5.3 | 11.3 | 1.3 | 78.7 | 67.5 |
| C | 2.0 | 6.0 | 10.0 | 0.7 | 81.3 | 68.5 |
| D | 2.0 | 6.0 | 11.3 | 1.3 | 79.3 | 67.2 |
| E | 14.7 | 18.0 | 28.7 | 1.3 | 37.3 | 59.2 |
| F | 8.7 | 6.7 | 10.7 | 2.0 | 72.0 | 51.9 |
| G | 4.0 | 10.7 | 12.0 | 2.0 | 71.3 | 60.0 |

- A. When handling heavy objects, in order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posture tells about is the side
- B. About high-temperature failure caused by temperature and humidity, cold disorder, informs about the precautions to prevent moisture damage to health for disability.
- C. When fly smoke, fumes, dust and etc, informs about the local exhaust and ventilation
- D. When exposed by pathogens, blood borne infection, airborne infection, the insects and zoonotic infections, tells the hazards and precautions to workers.
- E. Take precautions for physical fatigue, mental stress and chronic disease management
- F. Every three years in order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conduct a hazard investigation.
- G. Every three years in order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report a hazard investigation.

Table 7. Workers to communicate and transfer information

(Unit : Persons, %)

| Division | Very negative+Negative | Usually | Positive+Very positive | Do not know | Do not applicable | 100 point |
|----------|------------------------|---------|------------------------|-------------|-------------------|-----------|
| A | 19.3 | 24.7 | 24.0 | 2.0 | 30.0 | 54.2 |
| B | 4.0 | 18.0 | 35.3 | 0.7 | 42.0 | 69.5 |
| C | 4.7 | 13.3 | 16.7 | 2.0 | 63.3 | 62.0 |
| D | 4.0 | 14.7 | 25.3 | 1.3 | 54.7 | 67.0 |
| E | 2.3 | 14.7 | 43.3 | 0.7 | 38.0 | 71.7 |
| F | 2.7 | 13.3 | 30.0 | 0.7 | 53.3 | 71.7 |
| G | 3.3 | 12.0 | 30.0 | 0.7 | 54.0 | 69.9 |

- A. Counseling about the health and safety with workers
- B. Informs the health and medical examination results.
- C. Informs the work environment measurement result.
- D. If you create a new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regulations or changes, and reflects the opinions of workers
- E. If the workers suggest the opinions on workplace hazards, and actively reflects
- F. If the task team leaders or workers suggest the improvement opinions on safety and health actions, and actively accepts
- G. If the safety and health managers require the safety and health actions in the workplace, and work team leaders or workers actively support

3.4 근로자 건강관리와 안전보건관련 정보 고지

근로자 건강관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강관리에 대한 수행율은 화학물질이나 보호구 관리, 위험기계 및 기구 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건강관리 항목 중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제도의 수행율이 특히 낮은 편이다(Table 6).

근로자에 대한 정보전달 및 의사소통 또한 근로자 건강 관리와 마찬가지로 수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 중 직원들과의 안전보건 상담 수행율이 특히 낮은 편이다(Table 7).

3.5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수준

응답 사업장이 스스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수준을 평가하게 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19.3%가 안전보건 활동 수준이 ‘높다’(매우 높다 2.7% + 높은 편이다 16.7%)고 응답했다(Fig 3). 동종 업종 대비 해당 사업장의 위험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9.3%가 해당 사업장의 위험 수준이 타 사업장 대비 ‘높다’(매우 높다 2.0% + 높은 편이다 7.3%)고 평가했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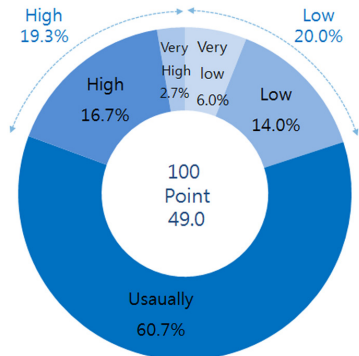


Fig. 3. The level of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in work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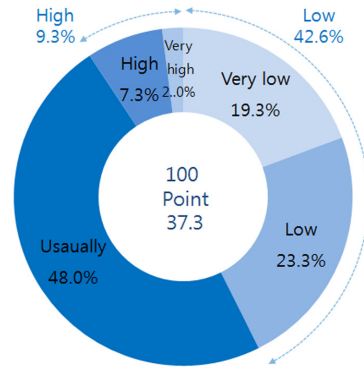


Fig. 4. The perception of the risk level in a homogeneous sector workplace.

사업장의 안전문화 활동을 반영하는 6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총점화하여(24점 만점), 안전문화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19.3%가 안전문화 활동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통’은 56.7%, ‘나쁜’ 사업장은 24.0%로 나타났다(Fig 5).

사업장의 안전문화 활동 관련 항목의 백점 환산 점수는 50~60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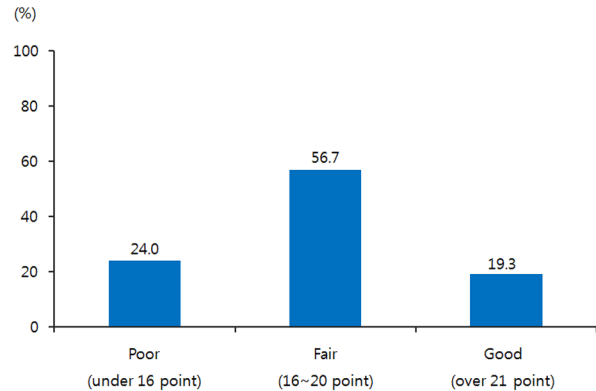


Fig. 5. The level of safety climate of the workplace.

Table 8. The activities of safety climate of the workplaces

| Division | Very negative+Negative | Negative | Positive | Very positive | 100 point |
|----------|------------------------|----------|----------|---------------|-----------|
| A | 4.7 | 28.0 | 51.3 | 16.0 | 59.6 |
| B | 2.0 | 11.3 | 62.0 | 24.7 | 69.8 |
| C | 3.3 | 13.3 | 58.7 | 24.7 | 68.2 |
| D | 8.7 | 27.3 | 46.0 | 18.0 | 57.8 |
| E | 4.0 | 19.3 | 54.7 | 22.0 | 64.9 |
| F | 3.3 | 16.7 | 60.7 | 19.3 | 65.3 |

- A. New employees receive the training they need to comply with safety regulations first.
- B. Regarding to the safety of the workers must observe the principle.
- C. Employers and workers in order to create the safest possible working environment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 D. If you do not follow the workers in the workplace safety regulations, Will receive a warning
- E. Management Principles from the workplace, the safety of workers has priority
- F. If the employee has violated safety regulations, may be reported to superiors fre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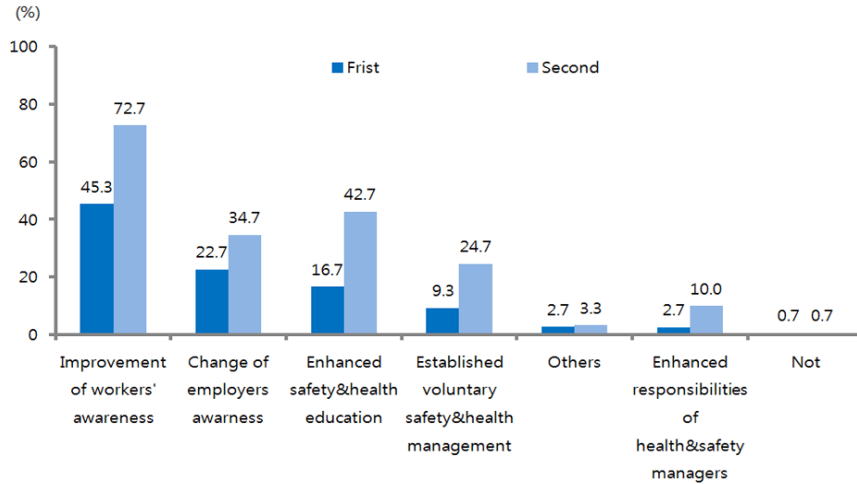


Fig. 6. Contents that should be improved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riority.

3.6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

산업재해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중복응답), ‘근로자의 의식 향상’(72.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전보건교육의 강화’(42.7%), ‘사업주의 의식변화’(34.7%),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24.7%)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다(Fig 6).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45.3%가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도’(45.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안전보건 예산증대(25.3%),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조언(16.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Table 9).

Table 9. Important contents for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Unit : %)

| | |
|---|------|
| Health care and promotion of workers | 45.3 |
| Increased founding on government support program | 25.3 |
| Technical advice and guidance for occupational injury recurrence prevention | 16.0 |
| Enhanced responsibility of safety manager | 10.0 |
| Law strengthening penalties | 2.0 |
| Others | 0.7 |

4. 결론 및 개선방안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형태와 성별 비율을 보면, 본 조사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27.1%로 10명에 2명, 여성근로자는 58.1%로 10명에 5명 정도이며,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중 67.9%가 주로 생산직(비사무직)에 종사한 여성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4,5)},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체

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5.8%로 10명당 2.5명으로(5~9인 19.3%, 10~29인 24.7%, 20~99인 18.3%, 100~299인 6.3%, 300인 이상 사업체는 5.5%임)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우리나라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적 비교는 어려우나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업체 규모가 큰 사업체보다는 영세한 사업체에서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중이 지속적 상승,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50인 미만 근로자수 대비 비중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⁵⁾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특히 여성근로자 및 초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특성별 맞춤형 보호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업무(일)과 관련되어 사고 및 손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3%로 사고 및 손상 재해율은 1.02%로 추정되며, 특히 여성근로자 집단에서 사고 및 손상 재해율을 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지속적인 건강보호가 필요하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 및 예방활동 평가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를 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64.7%로 가장 높은 반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유해요인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 사업장은 전체의 10.0%로 매우 취약하였다. 사업장내에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13.3%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산업재해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70.0%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험성 평가를 확산 및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5인 미

만 초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맞춤형 눈높이 위험성평가 틀 개발을 하여야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 교육 실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6,7)}, 특히 관리책임자 교육(19.3%), 정기교육(16.7%), 작업변경시 교육(14.7%), 특별안전보건교육(10.0%) 실시율은 매우 저조하였으나 채용시 교육(27.3%)은 실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낮은 교육 실시율과 필요성이 낮은 인식이 동종 업종 사업장보다 본인이 속해 있는 사업장이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또한 낮은 안전의식이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을 포함해서 10인 미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지원 및 열악한 교육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사업장내에서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화학물질이나 보호구 관리, 위험기계 및 기구 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근로자에게 정보전달 및 소통에 관한 질문에서는 근로자의 위험요소 관련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지만 직원들과 안전보건 상담하는 사업장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있다는 사업장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 고지와 관련되어서는 당해 사업장의 화학적·물리적 및 환경적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고지 및 인지시키는 것이 근로자 건강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고, 근로자의 건강상담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과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는 사업장내에서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19.3%이며, 전체의 60.7%가 그저 그렇다고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동종 업종 대비해서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수준은 낮다고 응답한 경우가 42.7%,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8.0%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분위기 수준에서는 조사항목을 총점화(각 항목 5점으로 총점수 24점 만점)하여 한 조사결과에서 21점 이상이 19.3%, 16점 미만이 24.0%로 조사되었는데, 백점 환산 점수하면 대체적으로 50~60

점대 인 것으로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의 안전활동 수준보다 대체적으로 낮았다⁷⁾. 안전보건활동 수준 및 위험수준 평가 결과를 보면 스스로 잠재적 위험수준이 낮다고(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합하면 90.7%), 즉 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장내에서 안전보건활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가 낮다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합하면 80.7%). 이러한 결과는 사업장의 안전문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은 표본수로 집합적인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은 있으나 건물 등 종합관리업 7개 서비스업종 종사자들로부터 응답된 조사결과로부터 도출된 함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보건교육의 강화, 사업주의 의식변화 및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지도,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지도·조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업종에 나타난 취약한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공단 및 민간단체예방기관에서는 보다 나은 안전보건서비스 개선과 안전보건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 Available from: <https://osha.europa.eu/en/press/press-releases/>, Cited 2015, July 1, 2015.
- 2) Korea Labor Institute, "Monthly Labor Review", Vol. 1-8, 2015.
- 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Current Status of Industrail Analysis", 2013.
- 4) J. H. Keum, "Informal workers seen by business size", Korea Labor Institute, Monthly Labor Review, Vol. 2, pp. 35-56, 2012.
- 5) Statistics Korea,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2014.
- 6) Y. Y. Kim, S. R. Kim, H. S. Jaunt. B. J. Baek and K. H. Ba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its Improvement Direction for Small and Medium Sized Industr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04.
- 7) M. S. Lee, K. Y. Park and K. H. Yi, "Management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 and Safety Educ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Workplaces",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23, No. 2, pp.121-140, 2006.